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이가령 · 김지영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색인: 구강보건행동, 구강보건교육

1. 서 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은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계속과정이다¹⁾.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인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어 내적,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또한 학업성적, 시험, 대학입시 등의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침으로서 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따라서 현재 고등학생의 구강건강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공중보건사업을 통하여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인 치아우식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우식증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강건강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소홀히 한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2000년도 외래 질병별 다발생 진료순위 10위 안에 구강질환이 3개(치주 및 치근단주위조직질환, 치아우식증, 치은염 등)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아우식증이 빈발하고 치은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구강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므로 학부모, 담임, 양호교사 등이 불소사용, 잇솔질 등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⁵⁾은 학교구강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치아 및 치아주위조직의 구조 및 역할, 구강건강의 중요성, 구강병(치아우식증, 치아조직병, 부정교합), 잇솔질, 계속구강건강관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차⁶⁾는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도 관심, 욕구, 기억, 행동을 위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구강관리습관을 유도함으로써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지속적인 구강보건행동을 유발시키고, 구강병예방사업 및 구강병치료사업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 등⁷⁾은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주질환이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조기치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방법으로는 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치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태가 치아우식증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구강내에 형성된 치태부위를 직접 보여주고, 그 치태를 제거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시켜 잇솔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방법만이 고등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올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 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구강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만 집중하여왔고, 고

등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의외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과 습관을 일생동안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D고등학교 1~2학년의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료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역시 담임교사를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배포된 279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268명(96.06%)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연구이다. 설문지는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포되었고, 4일 동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 구성

학년	전체		남자		여자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학년	137	51.1	77	56.2	60	43.8
2학년	131	48.9	67	51.1	64	48.9
계	268	100	144	53.7	124	46.3

안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세부조사내용은 학생의 성별, 학년과 구강보건지식으로 치아우식증 5문항, 불소 5문항, 치주질환 및 자일리톨에 관한 인지도로 각각 5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문항은 잇솔질 횟수와 치과방문 목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구강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교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와 학교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부터의 교육 필요성 인지도 및 학교구강보건교육시 참석의향 등을 이용하여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실태에 관한 내용도 조사하였다.

2.3 통계분석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질문된 총 20개의 문항 중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문항의 수로 고려하여 각 1점씩 부여하였고,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구강보건행동에서 치과방문 목적에 관한 사항은 충치치료, 치아교정, 발치, 보철치료, 신경치료 항목에 표시한 학생은 치료를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했다고 처리하였고, 스케일링과 정기적인 방문에 표시한 학생은 예방을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리코딩 하였다. 입력된 연구자료는 SPSS 11.5를 이용하여 각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동과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구강

보건교육 경험유무, 학교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부터의 교육 필요성 인지도, 학교구강보건교육시 참석의향 및 흡연과 음주유무는 χ^2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t-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 잇솔질 횟수와 최근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한 목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표 2〉는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을 비교한 것이다. 남학생의 구강보건지식점수는 12.91로 여학생의 13.35보다 낮게 나타났다($p < 0.05$), 일일 잇솔질 횟수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3회가 69명(48.3%)과 50명(40.3%)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4회 이상에서는 남학생이 22명(15.4%)보다 여학생이 37명(29.8%)으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치과방문 목적에서도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이 여학생이 18명(17.5%)으로 남학생의 10명(8.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표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성별	구강보건 지식 ¹	p	잇솔질 횟수 ²				p	치과방문 목적 ³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다	치료	예방	p
남	12.91±2.16	0.109	3(2.1)	49(34.3)	69(48.3)	22(15.4)	0.022	39(31.7)	74(60.2)	10(8.1)	0.045
여	13.35±1.94		5(4.0)	32(25.8)	50(40.3)	37(29.8)		22(21.4)	63(61.2)	18(17.5)	

¹: (Mean±S.D), ²: N(%), ³: N(%),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3.2 연구대상자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표 3〉은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조금 관심이 있다가 82명(58.2%)과 78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주 관심이 있다에서도 22명

(15.6%)과 15명(12.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고($p > 0.0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건강한 편이다에 각각 64명(46.0%)과 45명(36.3%)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표 3. 연구대상자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성별 N(%)		Total	p
	남	여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	2(1.4)	4(3.2)	6(2.3)	0.564
별로 관심이 없다	35(24.8)	27(21.8)	62(23.4)	
조금 관심이 있다	82(58.2)	78(62.9)	160(60.4)	
아주 관심이 있다	22(15.6)	15(12.1)	37(14.0)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매우 불편하다	13(9.4)	15(12.1)	28(10.6)	0.285
건강에 자신이 없다	57(41.0)	55(44.4)	112(42.6)	
건강한 편이다	64(46.0)	45(36.3)	109(41.4)	
매우 건강하다	5(3.6)	9(7.3)	14(5.3)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표 4. 연구대상자의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

	성별 N(%)		Total	p
	남	여		
학교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				
있다	18(13.0)	15(12.1)	33(12.6)	0.854
없다	120(87.0)	109(87.9)	229(87.4)	
학교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부터의 교육 필요성 인지				
예	110(79.1)	98(79.0)	208(79.1)	1.000
아니오	29(20.9)	26(21.0)	55(20.9)	
학교구강보건교육시 참석의향				
예	107(75.9)	89(72.4)	196(74.2)	0.573
아니오	34(24.1)	34(27.6)	68(25.8)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표 5. 연구대상자의 흡연과 음주실태[†]

	성별 N(%)		Total	p
	남	여		
흡연 유무				
피운다	11(7.8)	2(1.7)	13(5.0)	0.024
안 피운다	130(92.2)	119(98.3)	249(95.0)	
음주 유무				
마신다	60(43.2)	42(35.0)	102(39.4)	0.203
안 마신다	79(56.8)	78(65.0)	157(60.6)	

† : 무응답치로 인해 빈도가 일치하지 않음

3.3 연구대상자의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

〈표 4〉는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를 나타내었다. 먼저 학교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120명(87.0%)과 109명(87.9%)이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학교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부터의 교육 필요성 여부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각각 110명(79.1%)과 98명(79.0%)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교육시 참석의향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각각 107명(75.9%)과 89명(72.4%)이 참석하겠다고 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3.4 연구대상자의 흡연과 음주실태

〈표 5〉는 대상자의 흡연과 음주유무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1명(7.8%), 여학생은 2명(1.7%)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은 분포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 < 0.05$), 술을 마신다는 남학생은 60명(43.2%), 여학생 42명(35.0%)으로 흡연보다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지만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p > 0.05$).

3.5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6〉과 〈표 7〉은 고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알아보고자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잇솔질 횟수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형성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구강보건지식이었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건강치 못하다고 느끼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잇솔질 횟수가 증가하였고, 비차비는 2.05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지식

표 6. 대상자의 잇솔질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통계값	유의확률	Odds ratio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건강하다)	0.718	0.303	5.616	0.018	2.050
구강보건지식(14점 이상)	0.617	0.300	4.216	0.040	1.853
예측력			70.1%		

표 7. 대상자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통계값	유의확률	Odds ratio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건강하다)	1.112	0.459	5.864	0.015	3.039
예측력			86.3%		

점수가 13 이하인 학생보다 14 이상인 학생의 잇솔질 횟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비차비는 1.853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5$),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학생이었으며 비차비는 3.0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종합 및 고안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이란 학교에서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예방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진료를 제공하여 학생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고, 또한 구강보건진료수요를 최소로 줄이면서 구강건강을 최고수준으로 증진 유지시키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기도 하다⁸⁾.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주역이다. 따라서 학생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업을 연마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학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적 손실임은 물론 사회적 손실에 해당된다. 게다가 학생이 구강병으로 인하여 학업손실을 경험한다면, 이는 학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

하는 것이다⁹⁾. 청소년기에는 치아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는 연령이며 치주질환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예방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과중한 대학교 입학시험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연령층에 해당하므로 자칫 구강보건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이다¹⁰⁾. 따라서 고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고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분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모두 여학생이 좀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이는 윤¹¹⁾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상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구강위생지수가 양호했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며, 몇몇 연구에서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을 많이 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¹²⁻¹⁴⁾. 또한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관심이 없다보다는 관심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관심이 없다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20% 이상의 분포를 보여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관심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이 없다와 건강한 편이다가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구강건강상태를 학생들이 평가함에 있어 건강

합과 그렇지 않음을 구별하는 것에는 비교적 정확하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구강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조기 치료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를 파악하는 항목에서는 학교구강보건교육을 거의 모두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학교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지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만약 학교구강보건교육이 시행이 될 때 참석하겠나는 문항에서도 참석하겠다는 대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구강보건교육의 시급함을 나타내었다. 구강질환은 대부분 적절한 예방법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 가장 일반적인 구강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의 경우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해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¹⁵⁾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방법을 교육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상자의 흡연과 음주유무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치주염의 중요한 원인인자이고, 여러 구강질환발생에 있어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흡연이 치아상실의 중대한 요인이라고 결론한 여러 연구¹⁶⁻²⁰⁾에 착안하여 흡연과 음주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극소수의 흡연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유무에서는 흡연보다는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지만 성별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방법(담임 선생님을 통한 회수)의 재고를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에

정기적인 검진이나 구강병 예방법에 대한 학교 구강보건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학교, 가정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구강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발생한 구강상병을 가급적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며, 이러한 노력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가정에서는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하며 학생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대상의 선정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는 물론 여러 지역에서 표본이 추출되어야 하며 종단적인 연구방법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소재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χ^2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과 t-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13.12 ± 2.06 으로 나타났고, 지식점수(남: 12.91, 여:13.35)와 잇솔질 횟수(남: 4회 이상-15.4%, 여: 4회 이상-29.8%), 그리고 예방 목적의 치과방문(남: 8.1%, 여: 17.5%)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2.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70% 이상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였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구강건강상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50% 이상이 불편하고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3.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약 87% 정도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약 80%는 학교구강보건전문인력의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4. 고등학생의 잇솔질 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잇솔질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비차비는 각각 2.1과 1.9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차비가 3.0으로 아주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참고문헌

1. 강명신, 김종열, 김형규, 김백일. 구강보건 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관련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144-168.
2. 유리에. 중학생의 일상생활의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 호소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 최은경.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보건실의 상담기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조성옥.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스트레스 인지 반응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명호. 학교보건 및 실습. 서울: 수문사: 1992:152.
6. 차갑부.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1993:433-445.
7. 조은미, 임희순, 임선아.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과 치주가료필요지수에 관한 조사. 구강생물학연구 2001;25(1):201-215.
8.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8판. 서울: 고문사: 2000:250-251.
9. 윤영만, 이홍수. 구강병으로 인한 학업손실실태와 그 연관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3):323-339.
10.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임상예방치학. 서울: 이우문화사: 1991:48.
11. 윤희숙. 대학신입생들의 구강보건인식도와 구강위생상태와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2. 서은정. 건강행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성,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3. 이태현.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4. 윤정안, 조규성, 채종규, 김종관. 서울 경기지역 주민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치주과학회지 1989;19(1):89-109.
15. 권순고. 치아우식증 예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6. Bergstrom J. Cigarette smoking as risk factor in chronic periodontal diseas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89;17(5):245-247.

17. Linden GJ, Mullally BH. Cigarette smoking and periodontal destruction in young adults. J Periodontol 1994;65(7): 718-723.
18. Axelsson P, Paulander J, Lindhe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ental status in 35-, 50-, 65-, and 75-year old individuals. J Clin Periodontol 1998;25(4):297-305.
19. Obeid P, Bercy P. Effects of smoking on periodontal health, a review. Adv Ther 2000;17(5):230-237.
20. Turnbull B. Smoking and periodontal disease, a review. J N Z Soc Periodontol 1995;70(79):10-15.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city

Ga-Ryeong Lee, Ji-Young Kim

Dept. of Dental Hygiene, Ulsan Science College

Key words: Oral health behaviour, Oral health education

To prepare basic data for oral health promo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survey of the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268 stud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11.5 with χ^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oral health knowledge was 13.12 ± 2.06 . Statistically school girls were higher ($p < 0.05$) than school boy's oral health knowledge (male:12.91, female:13.35), tooth brushing frequency (male:4times or more-15.4%, female:4times or more-29.8%), and preventive dental visit (male:8.1%, female:17.5%).
2. More than 70% of high school students was concerned about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self-judgement of oral health, more than 50% of them was answered that they wasn't sure of oral health.
3. Only 13% of 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and 80% of them recognized oral health manpower's education needs.
4.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llustrated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ventive dental visit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self-judgement of oral health. The odds ratio was 3.0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